

# 진도군 “쌀 경쟁력 키워나가자”

### 벼농사 종합 평가회 열어 성과·병해충 교육 실시 “지난해 비해 수확량 증가 예상...대책 마련 노력”



진도군이 올해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개최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장에서 최근 벼농사 시범농가, 유색미 연구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벼농사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회에서 기상, 작황, 벼 병해충 발생상황, 흙미 채종포 및 우량 품종 생육결과, 최고품질 벼 품종 비교, 벼농사 분야 6개 시범사업과 이삭도열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대책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육종한 ‘진도흑매’와 ‘진흑찰’ 종자 증식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종자 증식사업을 통해 보급중으로 공급되지 않는 진도 흑미의 순도를 유지해 고품질의 흑미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진도지역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496kg/10a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해충 발생상황으로 먹노린재와 왕우렁이 밀도가 감소하고 해충 피해량은 벼멸구 66%, 흑명나방 92%, 흰등멸구 17% 감소했다.

하지만 끝동매미충과 벼물바구미 발생량이 급증했으며, 이화명나방 발생량은 지난해에 비해 73%가 증가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가을 장마로 이삭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했지만 방제비 지원, 일조시간 증가, 평균기온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확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 대책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군, 신활력 스마트 미디어 활용교육 개강

### 문화관광해설사 28명 대상 영상제작·SNS·유튜브 활용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치형)은 지난 18일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 강진지회(회장 김혜숙) 회원 28명을 대상으로 ‘신활력+카데미 마스터과정·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개강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액션그룹으로 활동 중인 전남문화관광해설사

협회 강진지회는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강진관광의 대표 얼굴로 강진 관광 및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개강식은 문화관광해설사 회원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최경지 전문강사가 2개월동안 휴대전화로 활용한 촬영, 스토리텔링, 영상제작법, SNS와 유튜브 활용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습득한 기술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 및 SNS와 유튜브를 통한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욱 군수는 “강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문화해설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스마트미디어 활용교육이 SNS를 통해 강진 문화관광이 활성화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이끌고 있는 추진단에서는 여러 액션그룹의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전남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3관왕

해남군 농업인들이 2021년도 전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3관왕을 차지했다.

해남군은 2개분야 총 10점을 선정한 대회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3관왕을 거머쥐며,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에 두각을 나타냈다.

우선 최경주 ‘홍화팍’ 대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 정보문화 확산 사례를 공유한 농업인에게 수여되는 ‘정보화 우수사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경주 대표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 교육을 계기로, SNS 마케팅, 팜파티, 온라인 마켓 입점 판매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 직접 재배한 홍화를 판매하고 있다. 사노라면, 한국기행, 6시내고향 등 다수 TV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여 해남홍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김영열 ‘땅끝차여사’ 대표는 농식품 판매 및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소통·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한 농업인에게 수여되

는 ‘우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 대표의 작품은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하는 등 영화 ‘진우치’를 패러디해 유머러스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최근 논란이 된 중국산 견고주 및 절임 배추의 위생문제를 비판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해남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우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강태양 ‘태평농원’대표는 자녀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무농약, 무투입의 자연농 철학으로 농사를 짓는 일상과 건강한 농산물로 제작한 도라지조청·고추장 등의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김영열 대표, 강태양 대표 모두 2021년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홍보물 제작 장비를 활용하여 출판물을 제작하는 등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의 정보화 교육이 성과로 이어진 사례이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귀농귀촌 전문교육...내달 9일~11일

장흥군 도시민지원센터는 관내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2021년 귀농귀촌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귀농귀촌 전문 교육은 전원생활에서 제2의 인생 설계 및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돕기 위한 기본 과정으로 개설하여 신규 전입자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다.

주요 교육 과정은 지역에서의 갈등 관리, 귀농귀촌 우수 사례, 작물별 선도농가 교육 및 우수농가 견학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함양하고 원활한 조기 정착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20시간의 교육수료증을 배부할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이수할 기회가 적어 2022년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에 애로가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귀농귀촌자간 유대감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군으로 쉽게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완도군,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신규시책 발굴

### 총 238건 접수...최종 15건 선정

완도군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봉진문 부군수와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등 간부 공무원, 시책 제안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규 시책 238건을 접수해 1차 심사를 거쳐 58건을 선정하였으며, 2차로 참신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 후 최종 15건을 선정했다.

주요 시책은 해조류 활용 소(牛) 사료 첨가제 개발, 가상현실(VR)·증강

현실(AR) 기술을 결합한 군 청사 메타버스 구축, 도로시설 개선 통한 안전 완도 만들기, 국제·지방세·등기소 통합 민원실 설치, 맞춤형 가정 자녀 돌봄 서비스, 안전한 빙그레 오솔길 조성 등이다. 이번에 제안된 신규 시책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봉진문 부군수는 “군정에 대한 작은 관심이 완도군의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에 공직자들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완도=이민혁기자

#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시극 ‘한밤의 꿈’ 개최

강진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바다)의 야간 관광프로그램 시극 ‘한밤의 꿈’이 11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세계 모란공원에서 열린다.

강진의 아름다운 야경자원과 공연을 연계한 가을 소풍 시극 ‘한밤의 꿈’은 강진의 대표적인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50여 명이 참여해 사의재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프로젝트 재현프로그램 및 마당극 ‘정해인이 좋~~소!’ 등 감성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진 도시락과 막걸리와 함께하는 세계모란공원 야간 피크닉 공연은 ‘을유년, 모란이 피기까지, 초의선사, 어느날 어느때고’ 등의 공연이 진행되며 공연 모두 군민들이 함께해의 미가 뜻깊다.

김바다 대표이사는 “참가자 전원 열체크 및 의무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버스 탑승 등을 통해 무탈한 야간 관광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안전하게 군민과 함께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